



아현관 권옹주 전 부정공파총회장, 권영도 부정공파총회장, 제관 권재규 부정공파총회 총무(오른쪽부터)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순임權順任, 16세, 부정공파, 1418~1441) 제580주기 및 문종대왕 제569주기 기신제향(忌辰祭享)이 2021년 6월 8일(목) 11시 30분 구리시 동구릉 내 현릉(顯陵)에서 이범수 현릉봉향회장을 비롯하여 참제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기신제는 초헌례(初獻禮,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예), 아헌례(亞獻禮,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종헌례(終獻禮, 마지막 잔을 올리는 예), 망료례(望燎禮, 제사가 끝나고 축문을 태우는 예) 순으로 진행됐다.

권옹주(權容柱, 부정공파) 전 부정공파총회장은 안동권씨를 대표하여 아현관으로 봉행하였고, 권재규 부정공파총회 총무는 제관으로 행공했다. 부정공파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주최측에서 참제 인원을 엄격하게 통제한 관계로 권영도 회장과 권오규 축전이 참석했다.

현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구리 동구릉에 위치하며 조선 제5대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으로 1452년 단종

(1441~1457) 즉위년에 문종이 안장되면서 건원릉 동쪽에 조성되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후 곧 세상을 떠나 경기도 안산에 묘를 조성했으나 문종이 왕위에 즉위한 후 왕후로 높여져 소릉(昭陵)이라 하였다.

그러나 계유정란(1453)으로 정권을 장악한 세조가 즉위 3년(1457)째에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현덕왕후도 폐위되면서 소릉도 파헤쳐지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때 소릉지(昭陵址)에서 발굴된 석양(石羊)과 난간석주(欄干石柱)가 안산향토사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피땀 어린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다. 1513년 중종 8년에 현덕왕후로 복위된 후 안산에 있던 능은 문종의 현릉 오른쪽 언덕으로 천장했다.

이번 제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하게 준수하면서 거행하였다. 제향은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주이씨중앙원에서 주관하며 선행단체는 현릉봉향회 서울특별시지원 성동구분원이 담당했다. 편집국장 권행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 취임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회장)에 취임했다. 이번에 설립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 내 교단은 물론 단체와 교회, 개인까지 아우르는 단체이다. 지난 22일 경기도 군포 ‘군포제일교회’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959년 창립해 62년간 복음 중심으로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힘써 온 한국기독교평신도협의회가 전신이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용광로가 되어, 모든 단체와 개인을 흡수해서 용광로에서 녹여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한다”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종파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 더불어 모두가 함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성경대로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총연합



취임패를 받는 권태진 대표회장(오른쪽)

회’는 앞으로 “민족의 뿌리를 찾아 나서고, 이를 통해 3.1절, 3.25 등 역사가 품고 있는 날들의 의미를 되살려낼 것과, 이른바 ‘싱크탱크’를 만들어 기독교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를 이끌 기독교 인재들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정공파 영해문중 권대원씨 소장으로 진급

안동권씨부정공파 영해문중 후손인 권대원(51)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 별 2개를 달았다.

권 소장은 지난 6월 3일 제39사단 사단연병장에서 가족,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사단장 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루어졌다. 권 신임 사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본연의 임무인 해안 경비와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태세완비에 최적화된 교육훈련에 매진하겠다”며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한 팀으로 단결되고 모두가 행복한 부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ROTC 30기로 입관하여 합참작전본부, 백두산부대 65연대장, 제1군사령부 검열과장, 2군단 작전처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등 육군에서 중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그 동안의 능력을 인정받아 준장에서 1년 6개월 만에 소장으로 진급, 제39사단 40대 사단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권 소장의 아버지 권두호, 어머니 황차분의 고향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2리(관어대)이며 부모가 경북 구미시로 이사를 한 후 아버지는 구미에서 화랑사를 운영하였고 구미시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만형은 학사장교로 공군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동생은 육군 대위로 전역하는 등 권두호씨의 집안은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가족이다. 권 소장은 구미초등, 구미중, 구미고등, 한양대학교를 각각 졸업했다.

권 장군이 소장으로 진급하자 부정공파 영해문중은 ‘권두호씨의 차남 대원군의 육군 소장 진급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 영덕군내 4개소에 각각 설치하였다. 권 장군이 소장으로 진급하였다는 소식에 부모는 물론, 일가친척, 문중, 각 학교 동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영선 간호사 대한적십자사 회장, 서울시장 표창

서울적십자병원 권영선 간호사가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공적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권영선 간호사는 퇴근길에 지하철가양역 승강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승객을 살렸다. 권 간호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협정의 수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의 응원 덕에 힘을 내고 있다. 모두 함께 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18일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일, 가양역에서 상정지 승객을 심폐소생술을 살린 서울적십자병원 권영선 간호사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신회영 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훌륭하신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며……

6월 9일 음력4월 그믐날은 안숙공(安肅公 휘諱 준蹲, 추밀공파, 17세) 할아버지 기제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시지 못해 방계인 제가 감히 짐사림과 함께 조촐하게 잔을 올리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직계 후손들이 훌륭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는 좋은 날이 오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내년을 기대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밀공파 문충공중종 사무국장 권오섭



동정

▲권순범(54) 대구고등검찰청 신임 고검장이 6월 11일 취임했다. 권 고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높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가치 구현을 독려했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신임 권순범 고검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법무부 검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방법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권병구 한국철도(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제60대 단장으로 지난 14일 취임했다. 신임 권병구 단장은 1982년 서울지방철도청 서울객화차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본사 차량기술단 단장, 본사 차량기술단 고속차량처장,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류차량정비센터장 등 철도 핵심 분야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권 단장은 산업재해예방, 조직문화개선, 기본에 충실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정비현장을 찾아서 현장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운행 중 고장군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권선복(사진 오른쪽)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가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서 최근 도서 3000권을 기증했다. 인문·교양분야 도서 100종이다. 이에 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권선복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권 대표는 “평소 도서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주시에도 도서를 기증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권오천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 교수가 지난 6일 (사)한국조리협회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흑마늘푸드테크 부문 ‘조리기능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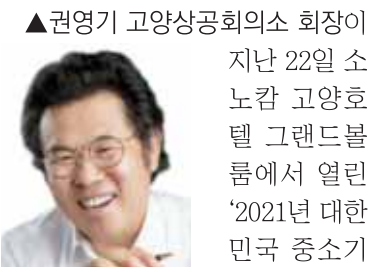
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통일부장관상을 받았다. 권오천 교수는 1997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20호로 조리기능장을 취득했으며, 1999년 9월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 교수로 부임하면서 후학양성과 남해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에 몰두해 왔다.



▲권석만(40) 강원 정선청년봉사단 회장이 16일 취임했다. 권석만 회장은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권 회장은 정선 출신으로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정선군외식업지부 부지부장을 역임, 현재 정선청년봉사단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권순경 상정지역협의회장이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권순경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마다 설치된 학부모, 지역교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기구이다”며 “코로나19로 학교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경남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각오로 즐거운 학교, 차별 없고 보람된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영기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소노캄 고양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권영기 회장은 (주)더체움 대표를 맡고 있다.

안동권씨 종보 구독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 족친 여러분의 소통매체이자 대변지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든 족친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지는 100만 족친과 함께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 활성화 방안으로 족친님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 1명 추천에 <10.000원>의 사례금을 즉시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독신청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입금 계좌 : 033237-04-006941(국민), 예금주 :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